

각론의 단계로 접어든 한국미술사 연구

짧은 연륜 불구하고 많은 발전... 독자적 연구방법론 정립할 때

모든 미술작품이 작가의 경험과 가치관, 감정, 인격 등을 충실히 반영하듯 한 민족의 미술은 그 민족의 역사, 문화, 민족성, 정서와 미의식을 그 특유의 조형언어로 내보여준다.

미술작품이나 미술활동을 연구하여 양식, 유파, 시대구분 등을 발견, 설정하고 또 그것들의 발생, 변천, 소멸, 상호관계원인, 역사적 의의 등을 밝히는 학문인 미술사학이 한 민족문화 이해와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미술사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연원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 정수를 이루는 풍성한 미술품들에 비해 그것을 대상으로 삼는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연륜은 그다지 깊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의 현황을 살피는 일은 어쩌면 그 깊지 않은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일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 미술사학의 선각자 又玄

우리나라에서 미술사에 대한 연구가 비롯된 것은 일제시대 우현(又玄) 高裕燮(1904~1944)에 의해서였다. "아직까지 우현의 수준을 넘는 연구성과는 없다"는 학계 일각의 가혹한 자평에서 엿볼 수 있듯 회화·건축·공예·도자 등 미술사 전 분야에 걸쳐 그가 일궈낸 연구성과는 한국 미술사 연구의 맨 첫 자리에 외롭게 그러나 우뚝 서 있다. 「韓國美術史及美學理論」(통문관, 1963), 「韓國美術文化史論叢」(통문관, 1966, 1972재판), 「우리의 미술과工藝」(열화당, 1977) 외에도 「韓國塔婆의 研究」(을유문화사, 1954)는 한국미술사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인 업적으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高麗靑瓷」(진흥섭편, 삼성문화재단, 1977), 「朝鮮書論集成」(고고미술동인회, 1965), 「朝鮮美術史料」(고고미술동인회, 1966), 「朝鮮建築美術史草稿」(고고미술동인회, 1964) 등이 그의 아까운 죽음(1944년 41세로 요절) 이후 그의 후학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신문사 기자였던 윤희순씨가 펴낸 「朝鮮美術研究」(서울신문사, 1946)와 서양화가 김용준씨가 펴낸 「朝鮮美術大要」(1949)는 본격적인 연구서라기보다는 에세이류에 가까운 미술교양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 시기 출간된 이 두 책은 최근 동문선(1994)과 범우사(1993)에서 각각 재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고유섭의 사후 한동안 공백기를 거친 우리

우현 고유섭에 의한 한국미술사의

출발은 발굴현장과 연구실로

동분서주한 60년대 독학세대들의

결과물들과 함께 70년대 대학교육을

통한 학술활동 정립기를 거쳐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학계 안팎의 평이다. 이제 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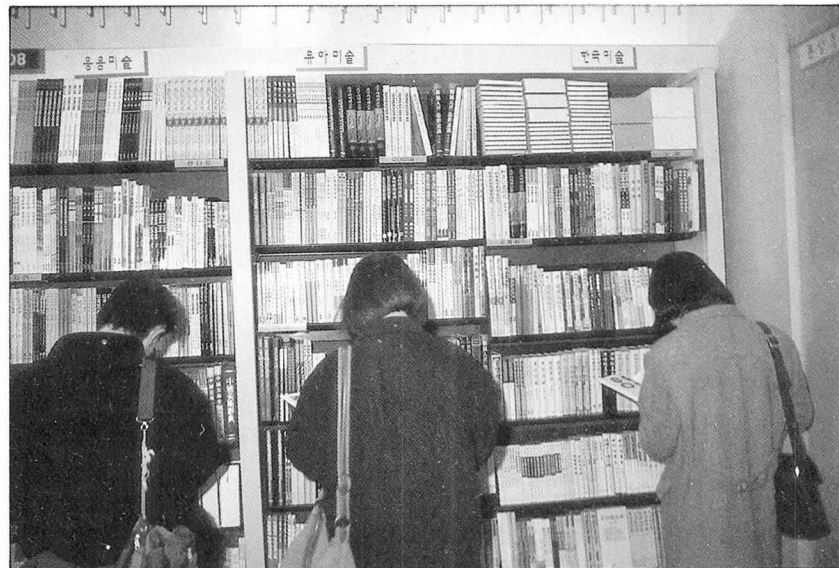
단계에 접어든 미술사학은 독자적인

연구방법론 정립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나라 미술사학은 60년대 들어서 고고미술동인회가 설립되고 이른바 독학세대라 불리는 김원룡·최순우·진홍섭·황수영 등의 학자들이 발굴현장과 연구실로 동분서주하면서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다. 김원룡의 「韓國美術史」(법문사, 1969)는 이 시기의 연구성과와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집성한 역저로 손꼽힌다. 1993년 출간된 「韓國美術史」(안휘준 공저, 서울대출판부)는 이 책의 개정판으로 각 시대별로 회화·조각·공예·건축의 순으로 체계를 일관성있게 재구성하는 한편 그동안 이루어진 회화부분에서의 성과를 모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회화를 첨가하고 분야마다 새로 밝혀진 자료와 연구성과들을 갈무리하고 있다.

지난 81년에 제1권이 출간된 「韓國美術資料集成」(진홍섭, 일지사)은 현재 3권까지 출간되어 있는데 올 3월에 제 4, 5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진홍섭·최순우가 함께 펴낸 「韓國美術史年表」(일지사, 1981) 역시 자료집인 셈. 고고학적 연구를 병행해야 했던 할 일 많은 시대의 요구를 끌어안은 이들의 연구는 미술사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개론서나 자료집에 머문 셈이다.

이렇게 터를 잡기 시작한 우리나라 미술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동국대 불교미술사학과(1970년), 홍익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1973년)를 비롯 몇몇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인접학파나 미술사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 대학교육을 통한 학술활동이 정립되면서부터 연구인력이 양산되었고,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문화재 발굴 성과 등도 미술사학의 발전을 도우어



회화 공예 도자 등 각 부문별 목록을 일별해보면 한국미술사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학계 안팎의 평이다.

준다. 결국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 미술사학은 새로운 의미의 출발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증자료 많은 조각·회화 연구 활발

한국미술사에서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활발히 진행된 분야는 아무래도 실증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조각분야이다. 고유섭의 「韓國塔婆의 研究」, 진홍섭의 「韓國의 佛像」(일지사, 1976) 황수영의 「韓國의 佛像」(문예출판사, 1989) 등 앞선 세대의 역저와 아울러 「韓國彫刻史」(열화당, 1980) 「新羅石塔研究」(장충식, 일지사, 1987) 「韓國의 塔」(일지사, 1989)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일조각, 1989) 「圓融과 調和」(강우방, 열화당, 1990) 등이 있다. 동국대 장충식 교수의 「新羅石塔研究」는 신라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사상사와 관련지어 접근, 사상사적 배경과 밀교적 요소 등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관심을 모았다. '한국고대조각사의 원리'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강우방(국립박물관학예연구실장)씨의 「圓融과 調和」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이르는 기간의 불교조각과 능묘조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일인학자들에 의해 그 독창성이 폄하되어왔던 회화는 근년들어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안휘준(서울대)교수의 「韓國繪畫史」(일지사, 1980)는 고대회화에서부터 18세기 우리나라 회화의 변화를 총괄하는 한편, 고려 및 조선시대 회화의 중국과 일본과의 교섭도 살피고 있다. 그가 지난 1991년 펴낸 「安堅과 夢遊桃源圖」(예경)는 광범위한 문헌기록을 섭렵하여 세종조의

시대적 배경과 안건의 생애를 추적하고 '몽유도원도'의 화풍을 분석, 안건이 후대 화단과 일본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韓國의 肖像畫」(조선미, 열화당, 1983)는 그동안 초상자료의 도록을 모으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 분야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초상화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화론적 해석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명대교수(동국대)의 「韓國의 佛畫」(열화당, 1977)가 이 분야 최초의 저서로 주목할 만하고, 회화의 주제와 사상에 비중을 둔 관점에서 조선시대 회화를 연구한 홍선표교수의 「조선시대회화사론」(문예출판사)이 곧 출간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된다.

공예와 도자사는 그것이 우리 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해 비교적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공예부문에서는 이만영교수의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일지사, 1992)와 한국 목칠공예에 관한 최초의 개설서로 평가되는 「韓國의 木工藝(上下)」(이종석, 열화당, 1986) 들 들 수 있고 현 전통공예관장인 임영주씨의 노작 「韓國文樣史」(미진사, 1983) 「傳統文樣資料集」(미진사, 1986)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본격적인 미술양식 연구서와 자료집으로 학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국미술의 조형작품 전반에 표현, 장식된 문양을 통시적으로 밝혀내고 수많은 시각자료를 집성해 놓았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연구자들 스스로 자평하는 도자사에 대한 연구성과는 손에 꼽을 만한데, 강경숙(서울산업대)교수가 선사시대

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8천년에 걸친 우리나라 도자기의 전사(全史)를 살핀 「韓國陶器史」(일지사, 1989)는 국내에서 출간된 이분야 최초의 개설서, 「韓國의 陶器」(정양모, 문예출판사, 1990) 「韓國陶器史研究」(윤용이, 문예출판사, 1993) 등이 이 분야의 몇 안되는 저서로 꼽힌다.

미학·사학과 변별되는 미술사학으로

학문발전의 일반적 단계로 볼 때 우리나라 미술사학은 이제 분명 개론(概論)의 단계를 넘어서 각론(各論)적 단계로 접어든 듯하다. 안휘준 교수는 “대학교육을 통해 연구인력이 양산되면서 우리나라 미술사의 연구는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시대별로는 조선시대에, 분야별로는 회화분야에 연구인력이 많이 모이는 추세이며, 회화의 경우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미술사 연구가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데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으나, 우리 미술사 연구가 우리 민족 문화의 이해와 발전이라는 학문적 과제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게 학계와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술사학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꼽는 선결과제는 아마도 대학 학부과정에 독립된 학과로서 미술사학과를 설립하는 문제인 듯하다. 아직 미개척 분야로 있는 금속이나 목칠 공예와,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한 발해와 가야의 미술사까지 아우르는 일, 문화의 영향관계를 선후나 우열관계로 파악하는 도식적인 틀을 넘어서 우리 미술사를 세계 미술사의 유장한 흐름과 연결지어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일도 우리 미술사학계가 발빠르게 뛰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강우방 씨는 “우리나라 미술사학은 그 연륜이 짧아 이미 확립된 다른 분야의 방법론을 원용해왔고 미술사 연구의 선두주자들이 미학(美學)이나 사학(史學)을 전공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술사학의 독자적인 연구방법론의 추구가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미학이나 역사학과는 분명히 변별되는 연구방법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술사학자들에게는 미술작품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느낄 따뜻한 가슴과 그들이 제각각의 조형언어로 뱉어내는 숨은 이야기를 읽어 낼 냉정하고 치밀한 이성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와 아울러 한 미술사가가 그의 저서에 인용했던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조선시대 문인의 글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박남정>

한국미술사 분야별 주요 저서 목록

<회화>

- 한국의 불화/문명대/열화당/1977
- 한국의 고관화/정신문화연구원/1979
- 한국불화의 연구/원광대출판부/1980
- 한국의 초상화/조선미/열화당/1983
- 고려불화의 연구/홍윤식/동화출판공사/1984
- 한국회화사론/이동주/열화당/1987
- 한국회화사/안휘준/일지사/1988
- 한국회화의 전통/안휘준/문예출판사/1988
- 표암 강세황회화연구/변영섭/일지사/1988
- 한국회론/김종태/일지사/1989

<조각>

- 한국불상의 연구/황수영/삼화출판사/1973
- 신라석조부도연구/정영호/신홍출판사/1974
- 신라의도우/이난영/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6
- 한국의 불상/진홍섭/일지사/1976
- 한국의 불교미술/황수영/동국역경원/1978
- 한국조각사/문명대/열화당/1980
- 한국의 불상/장충식/동국대/1983
- 석불연구/최완수/지식산업사/1984
- 신라석탑연구/장충식/일지사/1987
- 한국의 탑/장충식/일지사/1987
-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김리나/일조각/1989
- 한국의 불상/황수영/문예출판사/1989
- 원용과 조화/강우방/열화당/1990
- 통일신라석조미술연구/박중식/학연문화/1994
- 한국의 석조미술/진홍섭/문예출판사/1995

<공예 도자>

- 칠기공예론/김종태/일지사/1976
- 한국문양사/황호군/열화당/1978
- 한국의 금속공예/진홍섭/일지사/1980
- 한국문양사/임영주/미진사/1983
- 한국의 목공예/이종석/열화당/1986
- 고려나전칠기연구/곽대웅/미진사/1989
- 한국의 금속공예/이호관/문예출판사/근간
- 한국의 전통공예/이종석/열화당/1994
- 분청사기연구/강경숙/일지사/1986
- 한국도자사/강경숙/일지사/1989
- 한국의 도자기/정양모/문예출판사/1990
- 한국도자사연구/윤용이/문예출판사/1993
- 고려도자연구/윤용이/문예출판사/근간

나무들

조이스 킬머 지음 / 김귀화 옮김 / 이해인 수녀 해설



이해인 수녀님의 애송시... 나무들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런 시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대지의 단물 흐르는 젖가슴에
끓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앞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칼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느님뿐

한솔미디어



한솔기획

나태한 정신을 서릿발처럼 일깨우는,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의 진주.
여러분의 원고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리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팩스: 722-3866